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미국시

申 正 鉉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아마 그것이 우리들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너무 커다란 모습으로 버티고 있어서 전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설명하고 나면 다른 쪽을 설명할 수 없게 되거나 그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존재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떤 미완성의 思潮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아직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누가 포스트모더니스트인가, 무엇이 포스트모더니즘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단정적인 대답을 찾으려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현재라는 것이 미완성이고 뚜렷한 모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내리는 것이 무리인 줄 안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무리를 계속하는가? 핫산(Ihab Hassan)의 말을 빌어서 대답하면, 현재를 알려는 욕구는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가까운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어떤 현상이기에 어느 누구도 포스트모더니즘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숙명 때문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궁리한다. 우리가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으며, 그 애의 생김새와 장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듯이, 새로이 생겨나 이름이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름짓고, 소망하고,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억측하고 억지를 쓰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 중반 언젠가에 미국의 어딘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듯한, 삶과 예술에 대한 어떤 태도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수많은 억지와 억측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억측과 억지들은 대체로 '제3세계'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리얼리즘 예술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거나, 그것의 기원에 관한 것들, 脫—超모더니즘 논쟁에 관한 것들, 또는 그것의 가치에 관한 것들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제3세계의 정치·경제상황을 설명하거나 리얼리즘 예술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고 해서 나쁠 것

은 없다. 그것의 元祖가 바흐친(Mikhail Bakhtin)이라느니, 남미의 소설가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라느니, 자렐(Randal Jarrell)이 로웰(Robert Lowell)의 시를 비평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느니 등등의 주장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탈모더니즘인가 초모더니즘(ultra-modernism)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후기/탈구조주의자의 시각에서 그것의 본질을 ‘해체’(deconstruction)라고 선언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 많은 작업들은 모두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노력도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지 못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가치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문화는 도덕적인 것이고 리얼리즘 예술론은 至高의 것이라는 편파적인 가정이나 모더니즘은 귀족주의·엘리트주의의 산물로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 하거나, 그것의 본질을 ‘해체’, ‘재현불가능성’, 혹은 ‘삶의 多抑揚性’(multi-accentuality)으로 정의하면서 그저 좋은 것이라거나 나쁜 것이라든가 가치판단을 할 뿐, 왜 그것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해될 수 없는 어떤 현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20세기 중반 경에 서구에서 새로 생겨난 어떤 문화현상의 참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미학적 거리(aesthetic distance)를 두고 그 현상이 어떤 연유로, 어떤 경과를 거치면서,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의 구성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그 용어가 지닌 의미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용어는 ‘포스트’, ‘모던’, ‘리즘’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존재했던 어떤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그것은 ‘모던’한 시대와 ‘포스트’의 관계에 있는,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어떤 뚜렷한 ‘태도’나 ‘주장’이며, ‘모더니즘’과도 ‘포스트’의 관계에 있는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이거나 주장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정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던’의 시대와 ‘모더니즘’에 대해서 정의함으로써 ‘포스트’라는 접두어가 의미하는 변화의 속성을 파악해야 하고, 모더니즘과 구별되는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근대이후의’(postmodern) 역사에 대한 태도나 주장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modernity)을 지닌 역사의 어떤 필연적 결과로 생겨난 ‘근대후기성’(postmodernity)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근대성’을 지닌 역사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으로서의 ‘탈근대성’(postmodernity)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因果性을 지니고 ‘후기/탈근대성’으로 移行하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변화된 삶의 조건으로서의 ‘후기/탈근대

성'에 대하여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로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존재조건이 변화한 결과,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으며, 따라서 인식과 경험을 조직하는 審美的 방법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주와 자아의 본질에 대한, 역사와 자의식의 형성에 대한 가정들이 달라지고 삶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때, 일상의 경험은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되며, 새로운 리얼리티(reality)는 새로운 예술적 질서를 찾아내는 능력, 즉 새로운 감수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물음은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리얼리티가 무엇인가와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속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감수성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 감수성으로 새로운 리얼리티 속에서 어떤 예술적 형식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2. 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티, 포스트모던 문화

제사상을 차려놓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들이 제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 할 때, 어릴 때 미역을 감던 시냇물이 농약과 공장폐수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던 모시도포가 사라지고 기계로 만들어낸 똑같은 모양의 잠바들이 귀족과 천민의 구별을 없애줄 때, 대중가요가 고전음악을 밀어내고 보통사람들의 삶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컴퓨터와 자동차가 없는 문화를 생각하기도 싫어질 때, 건축이나 예술의 양식에서 혹은 의상이나 음식에서 동·서양의 만남을 볼 때, 코카콜라 상표를 보고 이국적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사람의 가치가 상품가치로 평가될 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포스트모던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근대까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이 포스트모던한 문화가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켰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계의 삶의 조건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존재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나 사상의 체계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否定하거나 저항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20세기 중반에 그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한 포스트모던한 문화 속에서의 삶의 조건에 대하여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정을 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이성'은, '제3차 산업혁명'이 문명의 모양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 20세기 중반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자기파괴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주가 합리와 아름다움을 향하여 움직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존재 그 자체는 부조리하고 불합리

한 것이며, 추악한 것일지 모른다는 실존주의적 가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까지 우주는 ‘이성적 법칙’—로고스(logos)—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은 그가 지닌 ‘이성’(reason)의 힘으로 우주의 로고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서구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제 2차 세계대전후 인간과 우주의 ‘이성’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었다. 까뮈가 『시지푸스의 신화』(*The Myth of Sisyphus*)에서 보여준대로, 인간의 존재조건은 어쩌면 산꼭대기로 돌을 밀어 올리는 일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하는 부조리한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삶의 조건에 대한 가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모양을 비춰줄 거울, 즉 삶의 의미를 참조할 참조체계—媒體談論(metadiscourse)—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삶을 보게 했던 포스트모던한 문화는 왜 생겨난 것이며,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일까? 포스트모던의 문화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근대라고 부르는 르네상스시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왔던 철학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르네상스시대에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神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思惟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인간의 이성과 그것에 바탕을 둔 합리와 진보, 경험과 과학의 법칙이 곧 우주의 존재법칙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이후 20세기 초까지의 近代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속성—‘近代性’(modernity)—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으로 생겨난 서구사회의 변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전자공학과 생명공학을 기초로 한 제 3차 산업혁명은 역사가 지닌 이 近代性的의 필연적인 결과였고, 포스트모던한 문화와 그것의 속성—‘近代後期性’(postmodernity)—도 近代性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필연적인 것이었다. 즉 ‘포스트모더니티’란 ‘모더니티’가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멘버그(Blumenberg)가 『근대의 정당성』(*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에서 지적한 대로, 역사에 있어서 ‘모더니티’는 ‘역사의 파산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¹⁾ 근대사는 인간의 사고를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힘에 묶어두던 信仰의 힘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존재의미의 창조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근대사의 하나의 오류는 존재의미의 근원을 이성적 경험의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사고와 언어에 대한 또 다른 감금을 가져왔으며, 삶의 범위를 좁히고 한정해 왔다는 데에 있다. 이성적 경험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거부는 삶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한정 혹은 왜곡을 뜻했고, 상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심미적·무이성적 경험의 표현방식에 대한 파괴를 의미했다. 현실구성에 있어서 기계론적 가치들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었고, 상대적으로 상상과 믿음의 有機的 가치들은 그들이 지닌 현실

1) Hans Blumenberg,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trans. M. Wallace (Cambridge: Cambridge Univ., 1983), p. 136.

창조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다. 언어는 기계론적 가치들을 의미화하는 ‘언어의 감옥’ 혹은 ‘파리잡이병’이 되어 이성적 경험의 영역 밖에 있는 삶의 의미들을 剝製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티는 기계론적인 가치들에 대한 병적인 믿음이며 유기적 가치를 담는 언어의 기능전복으로서, 모더니티의 강화이고 동시에 기형화이며, 포스트모던한 문화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속으로의 내면화이고 그것으로 비롯된 삶의 방식이다. 그 문화는 물질적 가치·기계적 가치·능력가치·상품가치를 중시하는 기형적이고 타락된 이성중심의 (Apollonian) 문화로서, 대중문화, 인간이 기계에 종속된 문화,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상실한 문화, 삶 속에서 자연을 소멸시키는 문화, 지식이 인격의 도야와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하는 문화, ‘異質世界’ (heterotopia)를 낳는 문화, ‘시장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였다.

포스트모던한 문화는 대중문화였다. 20세기 중반의 응용과학의 발달은 대중통신·교통매체의 발달을 가져왔고, 귀족문화가 갖지 못했던 대중들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냈다. 대중들은 그들의 경험을 얹으로 바꾸는 특유의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갖게 되었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변질되고 확대되었다. 아무런 기교도 목적도 없는 글과 손놀림, 다리놀림들이 문학과 예술의 영역을 기웃거렸고, 전통적으로 문화라고 정의되어왔던 ‘고급문화’는 ‘대중문화’의 언저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대중문화는 ‘현재’가 갖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현재’가 가진 모든 질곡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야성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포스트모던한 문화속에서 인간은 기계에 종속되었다. 과학자들은 맹목적으로 자연을 유린하여 그 법칙들을 찾아냈고, 인본주의적 정신을 결한 기술자들은 그 법칙들을 이용하여 원자폭탄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수많은 프랭켄슈타인 (Frankenstein)들을 만들어 내거나 삶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엄청난 장치들을 고안해 냈다. 컴퓨터로 음소가 분석된 뒤 재배열된 음소들의 결합이 문학이라고 여겨졌고, 기계적 장치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제거된 음들의 연결이 음악이 되었다. 그 결과 기계가 만들어 주는 삶의 리듬에 매달려 살아온 현대인들은 과학문명을 통제할 정신적 힘을 상실한 채 ‘마취’되거나, ‘백치화’되었다.

료마르(Lyotard)의 주장대로, 이성의 오용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식’ (knowledge)과 ‘언어’ (language)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정신의 단련을 고유한 기능으로 했던 知識의 전통적인 기능은 마비되고, 정보화될 수 없는 많은 전통적인 지식은 死藏되었다.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진리·정의·아름다움이 융합된 상태로 하나의 가치를 이루고서 비이성적, 무논리적, 무의식적인 규범체계를 만들어오던 ‘설화적 지식’ (narrative knowledge)—民譚, 신화, 전설 등에 의해 전수되는 소박한 삶의 철학—은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성적, 논리적, 추상적, 지시적, 인과적 규범체계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에 압도당하여 무용화되었다.²⁾ '그것이 참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식이 이제는 '그것이 능률적이며 팔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

포스트모던한 사회속에서는 언어도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그만두었다. 전통사회 속에서는 진/위(true/false)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와 당/부당(just/unjust)을 가리는 언어, 그리고 능률/비능률(efficient/inefficient)을 가리는 언어는 같은 언어였다. 즉, 국왕이나 아버지가 하는 말은 진리이며, 정당하고, 동시에 능률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는 진리와 정의와 능률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은 참을 말하고자 할 때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그리고 능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 언어체계를 참조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진실과 능률을 동시에 말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³⁾

과학의 발달이 언어를 분화시키고, 지식의 전통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실이 진리이기 위하여 '증거'(proof)와 '합의'(consensus)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증거와 합의를 확보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던 언어와 지식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증거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하게 해주던 모든 '실화'들이 '증거'와 '합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폐기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생산의 극대화, 자본순환의 극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능률성'(efficiency)의 게임(game)으로 바뀌었으며, 사회는 능률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⁴⁾

'설화적 지식'이 '중심설화'(grand narrative)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삶을 파편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과학적 지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성과 합리를 근거로 언어도 '과학적 지식' 그 자체도 분열되었으며, 따라서 이제까지 진리라고 여겨졌던 어떤 것들도 무너졌다. 20세기의 과학은 우주속의 모든 존재가 '불확실성의 원칙'에 지배되고 있음을 입증했고, 인간의 모든 과학적 행위들은 實在界의 신비를 벗기기 위한 게임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핫산(Hassan)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느껴졌던 진리의 상대성과 불확실성, 상호보완성과 불확정성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와서는 언어와 철학 등의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했고 진리의 불확정성과 불확정의 보편편재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모든 의미의 절대적 중심을 당연

2) J.F.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 1984), pp.18-26. For a digest, see Madan Sarup,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8), pp.121-23.

3) Ibid., pp.9-11.

4) Ibid., pp.23-6.

5) 정경호 편역, 『포스트모더니즘 : 이합 핫산의 문화 및 문이론』(서울 : 종로서적, 1988), 180쪽.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인문학은 절대적 중심과 절대적 의미의 반대쪽에서 중심이 탈, 확산, 해체, 불연속의 존재를 보았고, 따라서 유일, 일원, 통합, 목적을 지향하던 세계는 선택, 다원, 분열,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로 되었다.

‘설화적 지식’에 입각한 ‘중심설화’들이 와해되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삶의 조건은 힘의 중심의 부재였다. 그 결과 세계속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질서로 설명이 불가능해졌으며, 중심상실의 현대사회는, 푸코(Foucault)가 지은 이름대로, ‘異質世界’(heterotopia)가 되었다. 세계는 이제 ‘순수한 차이’를 지니고 영원히 평행선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보르헤스(Gorge Luis Borges)의 단편속에 사용된 중국의 어느 백과사전의 은유(metaphor)는 중심부재의 현대세계에 대한 멋진 이미지(image)였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백과사전에는 ‘황제소유의,’ ‘미이라로 보존된,’ ‘길이 잘든,’ ‘돼지 새끼들,’ ‘浮浪犬,’ ‘미친’... 등으로 동물들이 무질서하게 분류되어 있고, 범주를 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푸코와 보르헤스가 암시한 대로, 현대세계는 어떤 사물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같은 범주로 분류될 존재의 기초를 갖지 못한 세계가 되었다.⁶⁾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왜곡에 대한 또 하나의 적절한 이미지는 제임슨(F. Jameson)의 ‘시장’(the market) 이미지이다. 포스트모던한 문화 속에서 ‘시장’은 그것이 지닌 상업문화의 가치체제로 일반대중을 ‘식민화’하고 있다. 그 사회속에서 사람들은 상품가치로 평가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을 잃어가고 있다. 자연과학의 발달이 자연법칙을 유린하여 인간바깥에 있는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다면, 사회과학의 발달은 인문의 법칙을 유린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제임슨의 주장을 따르면,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인간의 내부에 있는 자연의 영역은, 그리고 그것이 문화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예술이나 문학의 영역은 상품가치에 의해서 ‘식민화’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와서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무의식의 영역도 ‘시장 이데올로기’에 의해 ‘식민화’되었다. 각종 전자매체를 통한 선전은 무의식을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종 예술은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모든 자연이 상품화되는 시대이며, ‘과학적 사고’에 의한 자연의蹂躪이 ‘거짓 욕망’과 ‘거짓 행복’을 창출하여 삶을 파괴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시대였다.⁷⁾

포스트모더니티가 理性과 科學에 대한 병적인 믿음이며 그것으로 야기된 역사의 속성이 라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理性의 非理性에 대한, 意識(consciousness)의 無意識(unconscious)에 대한 억압과 지배의 문화이며, 自然의 소멸과 人間精神의 상품화를 지향하는 타락한 이

에서 재인용.

6)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 An Archeology of the Human Science* (London: Tavistock Press, 1970), p. xv. "What is impossible is not the propinquity of the things listed, but the very site on which their propinquity would be possible."

7) 프레드릭 제임슨과 백낙청, "F. 제임슨과의 특별대담 : 암시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화운동,"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271-2쪽.

성증심의 문화였다. 능률가치·기계적 가치·상품가치가 지고의 가치가 되었고, 진리는 증거와 합의를 필요로 했으며, 언어는 분화되어 의사소통을 가져오지 못했고 삶과 경험의 의미는 파편화되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리라고 여겨지던 것들은 곧 진리이기를 그만두게 되고,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믿음도 불확실성에 종속되었다. 예술행위와 상거래 행위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예술활동은 상업적 이윤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 시대에 보편화된 대중문화는 일반대중들의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혀놓았지만 그들에게 바람직하고 깊이있는 경험만을 제공해 주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역사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퇴행이었다. 그들에게는 현상너머의 세계는 조리와 합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기보다 부조리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였다.

3. 이성중심문화의 해체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나의 정의는 포스트모던한 문화가 이성중심문화의 병적 현상이라는 깨달음이며, 그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형이상학적 체계—참조체계, 또는 媒體談論(metadiscourse)—에 대한 否定이며 저항이고 解體(deconstruction)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던의 문화속에서 이성중심주의(logocentricism)적 사고의 삶에 대한 한계와 감금을 보았다. 포스트모던의 이성적 질서는 삶의 유기적 에너지를 消盡하고 있었고, 위대한 정신을 체질하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의 엔트로피—유기적 에너지의 소진—과정을 늦추기 위하여 어떤 형태의 ‘되먹임’(feed-back)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되먹임’의 한 방법은 이성중심문화의 형이상학적 기초들—로고스(logos), 진리(truth), 의식(consciousness), 주체(subject), 正史로서의 역사(history)—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부조리’, ‘불합리’, ‘무고한 희생’, ‘급격한 변화’, ‘비인간화된 기계적 힘’, ‘엔트로피’, ‘불연속성’,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되는 포스트모던 문화를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해체를 통하여 그 문화가 삶의 중심에서 疎遠시켰던 것을 다시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삶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라캉(Lacan), 데리다(Derrida), 푸코(Foucault)와 같은 후기/탈구조주의자로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당위론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성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제임슨과 같은 사회주의 비평가들의 비판을 거부하면서, 존재론적 입장에서 포스트모던의 문화를 진단하고 처방했다. 그들은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질문에 앞서,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일 수 밖에 없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려고 했으며, 그 문화가 가치의 不在現狀이 아니라 가치의 顛倒現狀임을, 중심지향성의 중심이탈성의 경지에서 오는 삶의 불균형의 문제임을, 이성중심주의(logocentricism)의 어떤 부정적 결과임을, 이성의 반이성에 대한 독백의 결과임을 논증해 내려고 노력했다.

니체(Nietzsche)나 제임스(William James)를 뒤따른 후기/탈구조주의자들에게는, 眞理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진리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fiction, lie)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화나 종교, 과학과 예술도 어쩔 수 없이 허구이고, 어떤 허구도 절대적 허구일 수 없으며, 그들 사이의 位階(hierarchy)도 인위적인 것이다.⁸⁾ 앎(knowledge)은 언제나 實在(presence; Being)에 대한 경험이 끝나고 그것이 상징의 형태로 변형된 후에야 얻어지므로, 실재를 어떠한 손상도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억지이다. 만약 어떤 경험이 억지에 의해 어떤 틀 속에 고정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실재의 변질된 일부일 뿐 더이상 실재 그 자체일 수는 없다. 토인비의 지적대로, 만약 인간이 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神의 모양도 말의 모양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상징(언어)의 재현기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상징(언어)을 통해 얻어진 진리, 혹은 진리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삶의 중심들—‘주체’, ‘의식’, ‘개체성’, ‘로고스’, ‘역사’ 등—도 ‘앎’의 다른 어떤 형태와 마찬가지로 허구적 속성을 갖게 된다. 포스트모던에 이르기까지의 이성중심문화가 실재의 재현으로서 절대적 진리이며 삶의 중심이라고 여겨 왔던 것들은 이제 해체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으로 밀려났던 삶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을 삶속으로 다시 들여와 균형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라캉(Lacan)은 르네상스 이후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이성중심문화가 그 문화의 형이상학적 기초—참조체계, 혹은 媒體談論(metadiscourse)—로 삼았던 ‘주체’, ‘의식’(consciousness), ‘자아’(ego), ‘매개언어’(metalanguage)의 개념들을 재정의함으로써 포스트모던한 문명이 존재의 언저리로 밀어냈던 삶의 주변적인 것들—‘무의식’, ‘꿈’, ‘상상’, ‘자연’, ‘존재론적 자아’(the ontological self)—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다. 프로이트를 거쳐 포스트모던에 이르기까지, ‘의식’(consciousness)은 實在(presence)를 인식하고 진리에 도달하며 그것을 재현하는 제일의 정신능력으로 여겨져 왔고, ‘자아’(ego)와 ‘주체’(subject)는 그것을 운용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언어는 의식에 실재를 재현시키는 매체로서 중요했다. 라캉은 인식의 과정을 통찰하고 ‘의식’과 ‘주체’의 생성과정을 재고함으로써, 그리고 상징(언어)의 본질을 밝혀냄으로써, 합리주의 문명의 형이상학적 기초들을 해체했다.

라캉은 ‘내’가 의식하는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제까지의 ‘주체’(subject), ‘자아’(ego), ‘개체’(the individual)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라캉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의 ‘존재론적 자아’(the ontological self)는 선현적인 인식능력을 지닌 하나의 가능성일 뿐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고, 자기를 비취주는 거울로서의 ‘타자’

8)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wer*, trans. Walter Kaufman and R.J. Holingsdale (New York, 1976), p.451. 니체에 의하면, 삶의 조건은 진리아닌(untruth)이며,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부터 출발한다. 토인비에 의하면, 인간이 말의 모양이었다면 神의 모양도 말의 모양이었을 것이다.

(the other)가 없이는 결코 ‘주체’, ‘자아’, ‘개체’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자아’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주체’, ‘자아’, ‘개체’—은 결국 타자라는 거울에 비춰져 굴절되고 변형된 ‘존재론적 자아’이다. 왜냐하면, 타자라는 거울은 ‘나’와 마찬가지로 ‘주관성’(subjectivity)을 지니고 있어서, ‘나’는 언제나 ‘타자’와 ‘상호주관의 관계’(intersubjectivity) 속에서 만들어지고, ‘타자’의 주관성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이다.⁹⁾

‘존재론적 자아’가 ‘타자’와 관계하여 ‘주체’와 ‘자아’를 생성할 때, 상징(언어)이 관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규범과 법, 제도 등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주관성’에 의해 굴절되고 변형된 ‘나’를 다시 한번 변형시킴으로써, ‘주체’와 ‘자아’를 ‘존재론적 자아’로부터 더욱 더 멀리 疎外시킨다. ‘거울상단계’(the mirror stage)—거울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려내고 그 像을 실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전의 유아는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언어를 창조할 수 있고, 그 언어는, 경험이 상징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이지만, 경험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거울상단계’를 지난 어린이가 배우는 언어는 타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며, ‘존재론적 자아’는 사회적인 의미가 ‘이미’ 負擔된 언어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모양지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유아는 이때 ‘상징단계’—언어에 의해 사회화되고 개체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최초로 그가 사회화되는 것은 ‘아버지의 상징’을 담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the name of the father)에 의해 원초적인 욕구가 거세되고 자연상태의 완전함을 상실할 때이다. 즉 유아는 상징으로 존재하는 ‘法’을 내면화함으로써 ‘주체’와 ‘자아’를 형성하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개체화’(individualization) 된다.¹⁰⁾ 언어는 경험을 상징으로 바꾸는 변형성(metaphoricity)에 의해, 그리고 그것이 ‘이미’ 가진 사회적 의미에 의해 ‘주체’와 ‘자아’로서의 ‘나’를 ‘존재론적 자아’로서의 ‘나’로부터 멀리 疎外시킨다.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화’나 ‘개체화’란 상징에 의한 ‘존재론적 자아’의 변형이며, ‘완전한 상태’로부터 허구적 상태로의 ‘자기소외’(self-alienation)의 과정이다. ‘자아’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생겨난 언어적 산물이며, 자아의 획득과정은 자연상태로부터의 유리의 과정이고, 그것은 필연의 과정이다. 프로이트의 경우와는 달리, ‘자아’(ego)는 이제 더 이상 무의식적 충동에 규율을 주어 문화를 창조하는, 정신에 있어서 가장 고결한 부분이 아니다. 헤겔에게 있어서와는 달리,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변형’(negation)시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을 ‘필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다. ‘자아’와 ‘주체’는 ‘상징’이 만들어낸 허구적 구성체로서 자연상태의 완전함으로부터 유리

9) Jacques Lacan,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in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ed. Dan Latimer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9), pp. 500-9.

For a digest, see Sarup, pp. 16-9.

10) See A. Lemaire,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ch. 9. See also Sarup op. cit. pp. 14-29.

된, 끊임없이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지만 더욱 더 불완전해지도록 ‘결정된’ 존재로서,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 형이상학의 기초였던 ‘개체의 자율성’, ‘합리적 선택’, ‘절대적 주체’, ‘통합적 자아’의 개념들은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체되어야 한다.

데리다(Derrida)는 포스트모던한 문명의 기반을 ‘로고스’(logos), ‘實在’(presence), ‘존재’(Being), ‘진리’라고 보았고, 그것들을 축으로하는 이성중심주의 형이상학을 해체하려 했다. 플라톤(Platon) 이래의 합리주의 사상가들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는 확실성의 영역으로서의 ‘실재’(presence)를 가정하고 있었고 이 영역이 인식의 다른 영역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서 ‘로고스’이며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 데리다는 이성중심주의 문명이 우주운행의 근본으로 삼아왔던 ‘로고스’(logos)의 본질을 문제삼음으로써 ‘로고스’의 ‘중심성’을 해체했다. 라캉이나 푸코처럼, 데리다는 우리가 ‘실재’이며 그러므로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한된 인식능력을 지닌 개체에 의해서 지각된 것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직접적이고 순수한’ 실재는 인간의 인식 속에 어떤 형태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무한히 상대적이고, 무한히 가변적이며, 끊임없는 인간적 가치부여이고, 다른 것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된 모든 것은 ‘이성적’인 것이든, ‘비이성적’인 것이든 존재의미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한다.

왜 ‘實在’(presence)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실재’(presence)일 수 없는가? 이 물음은 데리다가 하이데거(Heidegger)로부터 이끌어낸 해체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물음이다. 하이데거는 ‘존재’(Being)는 ‘존재아님’(≠Being)이므로 그 단어 위에 가위표를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¹¹⁾ 데리다도 라캉과 함께 상징과 상징이 참조하는 실재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며, 언어란 인간이 실재를 재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끝없는 상징의 사슬을 따라 실재의 흔적이 언어 속에 남겨질 뿐, 실재가 궁극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끝없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생각을 ‘différance’라는 불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상징(언어)으로 표현된 것은 실재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차이’(difference)를 의미하며, 동시에 상징(언어)을 통한 어떤 再現의 노력도 실재의 재현을 지연시키는 상징의 사슬을 만들어 갈 뿐이다라는 의미에서 ‘지연’(deferring)의 의미를 지닌다.¹²⁾

상징(언어)이 ‘재현’의 피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그 수단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면,

11) Martin Heidegger, "Thinking and Destruction," in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pp. 124-34. Sarup, p. 35.

12) Jaques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in *Literary Theories in Praxis*, ed. Shirley F. Staton(Philadelphia: The Univ. of Pennsylvania, 1987), pp. 393-408. For a digest, Sarup, pp. 48-9.

‘순수하고 직접적인’ 실재라고 여겨지고 그러므로 중심이며 진리로 생각되는 것들—‘이성’(Logos), ‘말씀’(the Word), ‘神’(God), ‘정신’(the Mind), ‘의식’(consciousness) 등—은 중심임과 진리임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二元的 對立概念(binary opposition)들—정신/물질, 주체/객체, 영혼/육체, 속/겉, 시작/끝, 자연/문명, 말/글, 의식/무의식, 實存/本質, 진실/거짓, 실제/상상, 공산주의/자본주의, 민주주의/전체주의 등등—사이 존재하는 位階(hierarchy)도 해체되어야 한다. 이제 ‘진리아님’으로 여겨져 삶의 주변으로 밀려났던 것들도 하나의 ‘으뜸원리’ 혹은 ‘중심원리’에 종속됨이 없이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상징들의 의미를 예비하고 있던 ‘초월적 상징’(the presence; the transcendental signified)은 그 어디에도 내재해 있지 않았다.¹³⁾

하나의 예를 들면, 말/글의 위계에 대하여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일반적으로 글은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에 의해서 그리고 禁忌的인 것들을 감추려는 본능으로 實在를 변형시켜 표현된 것이므로, 그것은 實在界로부터 이중으로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어 왔고 그러므로 실제의 세계를 직접 표현하는 말에 비해 열등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실제에 대한 이중의 변형인 글은 말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그러므로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의식에 자국을 남기게 되어 말의 전제조건이 된다. 말 가운데서 실제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꿈 속의 말조차도 글이 무의식에 남긴 자국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얻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도 글과 똑같은 변형의 과정—은유와 대유에 의한 변형과 禁忌的인 것들의 표현을 피하려는 본능에 의한 변형—을 거쳐 표현되므로 실제의 글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은 책받침(writing pad)과 같아서 글을 통해 받아들인 경험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 그 자국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그 자국 때문에 실재를 조건없이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무의식 속에 있는 글의 자국은 어떤 힘의 장치를 통해 언제나 꿈이나 의식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의식의 언어뿐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를 만드는 데도 관여하기 때문이다.¹⁴⁾

푸코(Foucault)의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해체는 ‘歷史가 인류의 삶에 대한 진실한 기록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푸코에게도, 진리는 ‘앎’(knowledge)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역사’도 만들어진 진리의 하나이다. ‘앎’이란 인간의 의식에 남겨진 實在의 자국으로서 실제에 대한 인간적 편견이며, 실제와는 영원히 평행선상에 있고, 그것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신묘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힘’(power)을 얻게 되면 ‘진리’가 된다. 따라서 역사는 삶의 ‘진실한’ 기록이 아니라 ‘힘’(power)을 소유한 자의 하나의 ‘담론’(discourse)—주관적 편견을 담은 논리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앎’을 ‘진리’로 바꾸는 그 신묘한 ‘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리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개체나 정

13) Staton, op. cit., pp.388-9. Sarup, op. cit., pp.40-1.

14) Sarup, pp.46-7.

치집단, 혹은 제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담론들’(discourses)—학문적인 이론들, 법률들, 인습들, 제도들, 전통들—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the unsaid)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힘’과 ‘앎’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며, ‘말해지지 않은 것’—억압에 의해 말해지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을 말해지도록 함으로써 ‘힘’의 장치는 변형된다는 것이다. ‘힘’은 ‘앎’을 낳고 ‘앎’은 ‘힘’의 장치를 변형시키며, 거기에서 생겨난 ‘힘’은 또 ‘앎’과 관계하며 ‘진리’를 만든다.¹⁵⁾

『나, 삐에르 리비에르, 19세기에 있었던 어떤 존속살해』(*I, Pierre Riviere... A Case of Parricide in the 19th Century*)에서, 푸코는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리’와 ‘힘’과 ‘앎’과 ‘담론’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삐에르는 친족들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힌다. 그는 거기에서 범행의 동기와 범행사실에 대한 자서전을 쓴다. 그의 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그의 자서전이 증거로서 제시되고, 그 증거를 중심으로 역사, 정치학, 문학, 심리학, 생리학, 법학, 정신병리학 등 각 분야의 담론과 제도들이 만나, ‘진리’ 혹은 ‘의미’를 낳기 위하여 갈등한다. 진리의 창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한, 삐에르라는 ‘작가’(the author)는 죽고 텍스트만이 남게 되며, 그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담론이 지닌 ‘힘’에 따라 결정된다. ‘의미’(진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서로 상반되는 많은 의미가 공존하며 갈등하지만, 삐에르의 사건에서는 정신병리학이라는 이 시대에 새로이 생겨난 ‘담론’—앎의 체계—이 알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어 존재하던 ‘힘’의 장치를 변화시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었다. 정신병리학자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리’를 만드는 힘의 장치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가? 이것은 푸코가 합리주의 문명의 해체를 위해 제기한 또 하나의 질문이다. 푸코에 의하면, 스스로의 정신을 감금하면서 만들어낸 ‘거창한 지배담론’(master narrative)은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기초로 했던 18세기의 인문과학으로부터 생겨났다. 중세와 르네상스에는 문둥병(leprosy)이나 광기(madness)와 같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반이성의 증거로서 바다위에 떠 있는 배로 만들어진 감옥에 격리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이성의 시대에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반실용적인 것들—게으름, 熱情, 히스테리, 우울증, 거지근성, 獸性 등—모두가 반이성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들은 ‘합리적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감금되었으며, 사람들은 ‘합리적’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교육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성의 역사는 반실용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인 것도 모두 ‘반합리적인’ 것들로 규정했다. 결국

15) See. Michel Foucault, "Nitzsche, Genealogy, History," ed. D.F. Bouchard,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 (Oxford: Blackwell, 1977). For a digest, Sarup, pp. 30-1.

‘이성적’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확실성을 요구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全方位監視體制’(panopticonism)를 갖게 되었고, 모든 자유분방한, 열정적인, 위대한 정신은 이성의 문화속에 감금되었다. 이성의 역사는 ‘반이성’의 팽창과 확대의 역사였으며 그것의 대감금의 역사였고, 이것이 곧 ‘광기의 역사’였다.¹⁶⁾

푸코에게 있어서, ‘역사’는 ‘이성’(reason)의 ‘비이성’(unreason)과의 대화로부터 ‘이성’의 ‘비이성’에 대한 독백에로의 과정이며, 그러므로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이성의 독백에 의한 비이성의 감금의 시대이다. 그것은 ‘광기’ 속에 내재한 ‘지혜’의 소실의 시대이며, 자유분방한 위대한 정신의 대감금의 시대이고, 일상의 의식이 확실성을 요구하는 사회적·심리적 통제체제가 지닌 폭력에 의해 곤경에 처해 있는 시대이다. 푸코의 딜레마는 존재는 ‘이성적’·‘합리적’인 것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역사는 존재를 ‘이성’과 ‘합리’로 한정하며, 비이성을 그것으로 감금하여, 비이성이 지닌 지혜를 버리려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헤겔이나 맑스(Marx)와 같은 목적론자(teleologist)들에게 있어서와는 달리, 푸코에게는 역사는 어떤 ‘불변의 것’이나 ‘본질’로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거대한 목적’(grand thesis)의 성취를 위해 움직여 가지도 않았다.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우연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한 힘의 장치에 의해서, 인간의 보잘 것 없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났으며, 그 때 그것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의미들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잘 것 없는 인간적 경험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discourse)에 의해서, 혹은 그 담론이 근거로하는 ‘상수’(constants)라는 것, ‘본질’(essences)이라는 것에 의해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일부는 ‘중심’이 되고 일부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겨지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은 삶의 본래의 모습을 알기를 원한다면, 지배담론의 의미생성의 장치를 해체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 가치를 박탈당한 것, 정당성을 상실한 것,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the “local,” the “disqualified,” the “illegitimate,” the “discontinuous”—들의 삶 속에서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하고, ‘진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위계를 정하며, 그들을 걸러내던 가지런하고 일관성있는 지배이론과 지배담론에 맞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써어져 온 ‘역사’(history)가 아닌 ‘雜史’(genealogy)를 써야 한다.

라캉과 데리다 그리고 푸코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합리주의 문화가 기초로 했던,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문화속에서 보다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난 이성중심의 사고에 대한 저항이다. 포스트모던의 문화는 ‘非理性’을 ‘反理性’의 증거로 하여 고결하고 가치로올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을 감금하는 문화이며, 능률가치를 인본주의적 가치위에 놓고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문화였다. 라캉과 데리다 그리고 푸코와 같은 후기/탈구조주의자들은

16) Foucault, *Madness and Civilization* (London: Tavistock, 1967), especially chapters “The Great Confinement” and “The Birth of the Asylum.”

이성중심문화의 근거가 되는 형이상학적 기초들—‘주체,’ ‘자아,’ ‘로고스,’ ‘역사’ 등—을 해체함으로써 이성중심문화를 해체하려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체’나 ‘로고스,’ ‘진리’나 ‘역사’는 모두 상징을 통해 얻은 ‘허구’이며 ‘거짓’이다. 우리가 ‘진리’이며 그러므로 삶의 중심으로 여겨 왔던 것들은 모두 어떤 ‘앎’과 ‘힘’의 장치에 의해서 조건지워진 실재이며, 온갖 종류의 주관적 편견에 영원히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지배담론’(master narrative)으로 존재의 안쪽에 있는 삶의 일부를 어떤 이성적 체제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삶의 왜곡이며 제한이며 감금이다. 포스트모던의 ‘응장하고’ 뺄어낸 삶으로부터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非理性的의 정열과 지혜를 담은 ‘작은담론’(petit narrative)들로 삶을 구성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원초적 모양으로 환원해야 한다.

4. 이성중심미학의 해체

포스트모던의 세계는 ‘이성’의 신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조리(absurdity)와 역설(paradox)을 담고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도 ‘이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으로 감금되는 삶과 언어, 역사의 발전뒤에 숨어 있는 역사의 퇴행, ‘조리’와 나란히 존재하는 존재원리로서의 ‘부조리’를 보았다. 그들도 또한 ‘부조리’와 ‘불연속,’ ‘부제’와 ‘불확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성중심의 허구적 진리로蹂躪된 삶을 자연상태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성중심의 문화를 해체하려 했다. 문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다른 영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구별지워 주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포스트모던의 새로운 ‘현실’(reality)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성중심문화가 근거로 하던 미학—특히, 모더니즘 미학—을 해체하려 했다는 것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1920년대의 전위작가들이 발휘했던 것과 유사한 미학적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消盡의 文學”(“The Literature of Exhaustion”)에서의 바쓰(John Barth)처럼,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존재의 ‘벼랑’(ultimacy)으로 느꼈고, 그것을 표현하는 문학형식은 ‘심미적 벼랑’(aesthetic ultimacy)으로서 그 현실과 미학적으로 동시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⁷⁾ 그들은 이성중심의 문화가 상실한 非理性과 無意識의 지혜와 정열과 환희를 삶 속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그 문화를 떠받쳐 주던 상징체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더니즘 미학의 철학적·修辭的 기초였던 ‘초월’(transcendence), ‘再現’(representation), ‘잘 짜인 구조’(well-wrought urn), ‘심리적 시간’(psychological time), ‘공간적 형식’(spatial form)

17) John Barth, “The Literature of Exhaustion,” in *The Harper American Literature* Vol. 2 (New York: Harper & Row, 1987), pp. 2134-5.

등의 개념들을 해체했고, 해체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미학을 추구했다. 포스트모던의 문학은 ‘부조리 문학’(literature of absurdity)이었으며 ‘굴종의 문학’(literature of assent)이었고, ‘상실의 문학’(literature of loss)이었으며 ‘침묵의 문학’(literature of silence)이었다. 또한 그것은 ‘재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허구의 문학’이었으며, 시간의 우연성을 인정하는 ‘우연의 문학’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은 존재의 부조리를 부조리한 형식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조리 문학’이다. 모더니즘 시대의 카프카(Kafka)나 조이스(Joyce)처럼,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베케트(Samuel Beckett)나 보르헤스(Jorge Borges) 같은 작가들은 ‘消盡’을 속성으로 하는 이성중심문화 속에서 모든 소설형식이 ‘消盡’되었다고 느꼈고, 그 시대가 만들어 낸 존재의 ‘벼랑’을 표현해 줄 적절한 미학을 찾지 못한 채 ‘눈멀었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합리주의 문명이 창조해낸 형식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극’(wordless mimes)의 형식을 창조했다. 바스가 주장하고 있듯이, 케이지(John Cage)는 『4분 33초』(4'33'')에서, 베케트는 『와트』(Watt)와 『몰리』(Molly)에서, 그리고 보르헤스는 “빠에르 메나르, 동키호테의 작가”(“Pierre Menard, Author of the Quixote”)와 “꿈으로 더럽혀진 현실”(“Contamination of Reality by Dream”)에서 이성중심미학에 비추어 보면 ‘부조리’하다고 생각될 주제와 형식을 창조했다.

케이지는 그의 극을 텅비고 말없는 무대와 대화없는 대사로 구성했고, 베케트는 몰리로 하여금 ‘우주의 형성원리로서의 침묵’—‘the silence of which the universe is made’—에 대해서 말하게 했다. 또 보르헤스는 그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세르반테스(Cervantes)의 원작을 베껴 쓰게 하거나, 강력한 상상력의 힘으로 실제세계를 침범하게 했다. 이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항상 무엇인가 ‘일어나고,’ ‘존재하고,’ ‘말해지는’ 세계에 대하여, ‘베껴 쓰는’ 것을 금기시하고 상상력에 의하여 얻은 것을 무대접하는 세계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세계,’ ‘침묵이 존재원리인 세계,’ ‘상상력으로 더럽혀진 세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합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서 전혀 의심받지 않던 세계를 깨뜨려 열고자 했다. 그들은 독창성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부조리’한 형식의 창조를 통해 모든 문학 형식을 消盡해온 이성중심미학을 극복하려 했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이성적 언어의 ‘監禁性’과 그로 인한 삶의 喪失을 문제삼는 ‘상실의 문학’이다. 포스트모던의 역사는 꿈꾸고, 상상하고, 느끼고, 절망하고, 환희하며, 인내하는 인간의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反人間的 역사였으며, 그러므로 삶의 유기적 에너지가 소진된 역사였다. 피들러(Leslie Fiedler)가 그의 에세이 “경계를 넘고 간격을 좁혀라”(Cross That border—Close That Gap)에서 시사했던 대로, 보네군(Kurt Vonnegut)이나 바스, 올슨(Charles Olson), 긴스버그(Allen Ginsberg), 베리만(John Berryman), 안틴(David Antin)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삶의 유기적 에너지를 잃어버린 모더니즘의 ‘고급문

화'에 대해서 저항했다.¹⁸⁾ 콘래드(Conrad)나 조이스(Joyce), 엘리엇(Eliot)이나 울프(Woolf)나 예이츠(Yeats) 같은 모더니스트들은 '변방적인 것,' '천한 것,' '공상적인 것,' '로맨스적인 것,' '모험소설적인 것'을 祭物로 하여 성스럽고 신비한 '고급문학'을 창조했었다. 이에 대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무계급의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꿈과 비전과 환희와 절망을 그들의 문학 속에 담으려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하고' '숭고한' 삶을 잃어버리는 모더니즘의 예술을 해체하려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이 대중들의 삶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피들러의 주장대로 '대중문학'은 아니었다. 20세기 중반 즈음에는 대중문화의 힘이 너무도 거대해졌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스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중문화와 대중들의 삶을 무시하고 작품을 쓸 수 없었지만, 그들이 대중문화를 '환유'로하여 표현하려 했던 것은, 모더니스트들이 '숭엄화'라고 주장하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질서부여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毀損이며, 문명은 인간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옥이고, 역사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退化(degeneration)라는 그들의 철학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꿈과 비전과 환희를 통해,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현대문명이 천대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원시적인 삶의 원형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이 혼돈의 자연을 질서화하는 '문학'(literature)으로의 '초탈'의 시도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반문학'(aliterature)으로의 환원의 시도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은 '합리의 시학'(Apollonian poetics)을 두드려 열어 원시의 삶을 위한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오르페우스의 사지절단』(The Dismemberment of Orpheus, 1971)에서 핫산이 지적한대로,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모더니즘의 아폴론적인 에너지를 거세하고 그것의 디오니수스적 에너지와 破戒의 속성을 물려받은 '되돌림'과 '원시성'의 문학으로서 '침묵의 문학'이다. 이 책에서 핫산은 포스트모던의 문학을 디오니수스 神의 시녀들에 의해 사지가 절단당한 오르페우스의 수금소리에 비유한다. 원시적 환희의 神 디오니수스의 시녀들은 목적과 이성과 젊음과 남성적인 것만을 좇는 오르페우스의 四肢를 절단하고 수금과 함께 그를 헤브루스(Hebrus)강에 던져 넣었다. 포스트모던한 시인 오르페우스는 절단당한 사지의 상실에 대하여 슬픔을 느꼈다기보다 해방의 희열 같은 것을 느꼈으며, 그의 수금은 물 속으로 던져지며 이성과 합리의 운율을 담는 현이 끊겼다. 그후 사지가 절단당한 오르페우스는 이성과 합리의 운율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려는 몸짓을 하며, 끊어진 현에서 나오는 '침묵'으로 삶의 환희와 고통을 계속해서 노래했다. 오르페우스의 '침묵'은 理性과 필요와 목

18) Leslie Fiedler, "Cross That Border—Close That Gap," in *The Collected Essays of Leslie Fiedler* (New York: Stein and Day, 1971), pp. 461-85.

신문수 번역, "경계를 넘고 간격을 메우며," 『포스트모더니즘』, 정정호·강내희 편(서울: 도서출판 터, 1988), 29-62쪽.

적의 원칙하에서 건설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거부이며, 그것들로부터의 자기추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단 후에 남은 디오니수스적 에너지의 방출을 통한 새로운 자아의 창조를 의미한다.¹⁹⁾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모더니즘의 아폴론적인 전통으로부터 고의적인 이탈을 음모하면서 ‘침묵의 문학’을 써왔다. 베케트나 밀러(Henry Miller) 같은 작가들이 조국과 母國語로부터 스스로를 추방했던 것은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양식을 결정짓는 존재조건들—세계, 세계관, 전통, 생활양식 등—로부터의 자기추방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준 세계의 傳承의 거부였다. 그들은 ‘침묵’을 통한 문학의 자기정화와 파괴를 통한 재창조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금세기의 초에 전위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술과 문화의 제 영역에서 기성의 관습에 대하여 공격을 가했으며, 기교로서의 예술을 거부하고, 삶이 숨쉬는 예술을 원했다. 부정을 통한 긍정, 해체를 통한 재창조, 역사 밖의 역사라는 다다이스트들의 역설적인 예술이론은, 핫산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규범이었다.

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파괴를 통한 영웅적인 재창조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모더니스트들이 재창조하려 했던 것은 보다 커다란 당위적 중심, 보다 포괄적인 로고스, 보다 ‘최상의 허구’(supreme fiction)였다. 베케트나 밀러를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절단’ 후에 남은 작은 것—‘침묵’—으로부터 무언가 진실에 가까운 것, 무언가 진정한 것, 그리고 순수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찾아내줄 형식을 필요로 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해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이며, 자기파괴적, 악마적, 허무주의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 혹은 존재의 긍정이며 자기추방, 자기초월이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신성한 의식,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것의 추구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은 또한 존재의 부조리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동이의 문학’이며,²⁰⁾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굴종의 문학’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그들 이전의 합리주의자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각했다. 모더니스트들도 그들의 세계속에서 혼돈·역설·부조리, 불연속·비질서·불확실, 그리고 우연함·誣告함의 존재를 보았으나, 그들은 예술가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완전한 조화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순화된’(purified)언어로 표현한 것이 ‘최상의 허구’(supreme fiction)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²¹⁾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는 부조리와 우연 너머 질서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19) Ihab Hassan, *The Dismemberment of Orpheu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2nd ed. (New York: Oxford Univ., 1982), pp. xvi-vii.

20) See Allan Wilde, *Horizons of Assent: Modernism, Postmodernism and Ironic Imagin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1981).

21) 이 논문에서 모더니즘에 관한 부분은 拙稿 “모더니즘과 의미의 창조,” 『미국학』 十二輯(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89), 45-78쪽 참조.